

9월 동결 기대 ↑ AI S/W 랠리· 3대지수 상승, 반도체는 보합



미국시황/ESG 김윤정 _yunjeong.kim@ls-sec.co.kr
RA 성현영 _hyseong@ls-sec.co.kr

3 대지수 상승, 기술주 강세 흐름에 반도체는 소외

- 미 증시는 DOW +1.18%, S&P500 +1.06%, NASDAQ +1.40% 상승. 금융, 통신서비스, 임의소비재 강세, 에너지, 소재 약세
- 월러 연준이사의 비둘기파 발언에 증시 강세 뚜렷 한편, 기술주 내 온도차. 엔비디아(+1.8%) M&A 소식과 전일 스노우플레이크(+16.6%) 실적 호조 등 개별종목 호재와 맞물려 M7 및 AI S/W 진영 강세. 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0.1%, 브로드컴(-2.7%) 실적 실망 및 구글 TPU 공급사 다변화 조짐 등에 약세 보인 영향으로 반도체섹터는 보합권에 그침

매파 기초 보이던 월러 연준이사의 긴축 완화 시사 파급력

- 월러 이사는 최근 지표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일부 징후를 보고있다는 진단과 더불어, 8 월 물가지표가 예상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시 이번 FOMC 에서 금리 동결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발언. 이는 앞서 윌리엄스 총재의 인플레이 완화 가능성 진단과도 유사하나, 월러 이사의 최근 스탠스가 매파적 성향이었다는 점과 9 월 FOMC에서의 표결 방향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차이
- 국채금리 하락 10Y 4.761%(-3bp) 2Y 4.332%(-5bp). CME FedWatch 9 월 동결확률 36.8%→49.8%까지 확대
- 다만, 월러 이사의 동결 시사는 인플레이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다음주 예정된 8 월 CPI 지표 주목도 확대

비농업 고용보고서 앞두고 지표는 저고용·저해고 시사

- 8 월 ISM 서비스업 PMI 55.4 전월·컨센 상회. 기업활동·신규주문·재고 등 세부지표 전반 상승세. 고용도 47.4→47.8 2 개월 연속 위축국면에 있으나 소폭 개선. 가격지표는 70.3→72.6 상승 부담
- 8월 챌린저 감원계획 5.2만명, MoM +58%, YoY -38%. 산업별 소비재(P&G, 에스티로더) 감원규모 가장 큰 영역. 한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0.6만명 전주·컨센 상회
- 7 월 미 무역적자 -886 억 달러, MoM +24.4% 증가, 작년 3 월 이후 최대치.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의한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장비 수입 급증 영향

티커	종목명	수익률 (1D,%)	내용
NVDA	엔비디아	+1.8%	오픈소스 AI 개발자 플랫폼 허깅페이스를 \$12.9B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발표하며 주가 강세. 오픈웨이트 기반 AI 생태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추진. 한편 레노버 및 에이서가 10월 중 엔비디아의 RTX Spark 칩을 탑재한 첫 윈도우 PC를 출시한다고 발표
PLTR	팔란티어	+7.7%	PwC와의 파트너십 확대, 전거래일 주가 조정 이후 매수세 재유입되며 급등. PwC US와 기업용 AI 플랫폼, M&A 트랜스포메이션, ERP 현대화 등에 중점을 둔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발표. 또한 육군 등 정부계약과의 연장 소식도 주가 상승 압력. 이에 전거래일 구글 딥마인드 Gemini 3.8 Flash Cyber 공개에 따른 하락분 하루만에 만회
TSLA	테슬라	+5.4%	장 마감 후 사이버랩 공식 출시 행사 기대감에 주가 상승. 테슬라는 이번 행사에서 스티어링 휠(운전대)이 없는 사이버랩에 첫 일반인 승객을 탑승시킬 계획. 일론 머스크 CEO는 센서 집약적 방식인 웨이모 대비 카메라 기반 자율주행 시스템의 대량 양산 및 원가 우위를 강조. JP모건 등 글로벌 IB는 단기 확장성 긍정적 평가
CIEN	시에나	-10.4%	실적발표. 회계연도 3분기 실적 호조 및 연간·4분기 매출 가이던스 상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연초 이후 AI 및 데이터센터 향 광통신 수요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던 데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및 향후 실적 눈높이에 대한 실망감 부각된 영향으로 해석
LULU	룰루레몬	+1.4%	장 마감 후 실적발표. 시간외 주가 -18%대 하락중. 부진한 실적 및 가이던스 발표로 주가 급락. 사업 터너라운드에 난항을 겪으며 2분기 동일매장매출이 -9% 역성장 기록하며 매출 둔화세 지속 확인. 2개 분기 연속 연간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차주 하이드리온 CEO의 공식 취임을 앞두고 실적 회복 지연에 대한 우려 확대